

나주 빛가람동, 정주 여건 개선 '인구 4만' 벽 뚫는다

시, 844억원 투입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베벳산 일부 테마정원도 매성초·돌봄교실 등 학교복합시설 신설...악취개선에도 성과 나타나

빛가람혁신도시가 정주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획 인구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는 학교와 돌봄시설, 놀이 공간을 확대한다. 이 같은 시도는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인구 4만' 벽을 허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1일 나주시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나주시 빛가람동에 거주하는 19세 이하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1만1136명으로 전년 동기(1만1057명) 대비 79명(0.71%) 늘었다.

코로나 19 발발 이전인 2019년(9597명)보다는 1539명(16.03%) 증가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과 광주시 인근의 '젊은 부부'의 전입이 많은 빛가람동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부족한 문화·교육시설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빛가람동 주민들은 지역 내 초등학교 증설, 문화 생활 공간 조성, 교통 편의성 개선 등을 수년 동안 줄곧 나주시에 건의해왔다.

대표적으로 자녀를 가진 젊은 세대가 많지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만한 문화 공간이 부족했는데, 나주시는 '어린이 테마파크'와 '어린이스포츠허브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844억원을 투입, 빛가람호수공원 일대 부지 52만㎡ 가량을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할 계획이다.

어린이 테마파크는 영유아와 부모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어린이 물놀이 시설 ▲실내 놀이터 ▲숲속 놀이터 ▲에너지 정원(가칭)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한 체험 교육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 베벳산 일부 부지를 테마정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이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조명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나주시가 추진하는 '빛 축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초등학교 증설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지난해 9월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빛가람동 초등학교 부족으로 인한 일부 학교의 과대, 과밀 현상 해소를 위해 매성초(가칭)와 돌봄교실,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을 신설하기로 했다.

매성초의 예상 개교 시기는 오는 2029년 3월로, 빛가람동 매성중, 매성고 인근 부지에 1만 500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빛가람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됐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주시 악취통합관제센터'도 성과를 내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은 거주지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혐여움을 표현해왔는데, 센터가 문을 연 뒤 주민들은 악취가 발생하면, 신고 접수를 통해 전문 인력의 즉각적인 응대와 현장 조치를 받아오고 있다. 올해 1-5월 악취 발생 현장 지도 점검 수는 508건으로, 센터 개소 이전인 전년 동기(151건) 대비 3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미국 인재개발협회 'BEST HRD Award' 수상

인재자원개발 혁신 3대 성과 인정 국내 공기업 최초 수상 영예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미국 인재개발 협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서 최고 수준인 '2024년 BEST HRD Award'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BEST HRD Award'는 지난 2003년부터 기업의 인재양성 및 인사혁신 성과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수여하는 상이다.

한전은 이번 심사평가에서 ▲인재개발 전략체계 ▲인재육성 혁신 사례 ▲교육의 양적·질적 성과 등의 우수성을 검증받았으며, 삼성전자와 관계정에 이어 국내 공기업 중 최초로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특히 한전은 ▲신성장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3-Way(집합교육+화상교육+e러닝) 교육체계를 통한 직무교육 공백 최소화 및 멘토링 등 적극 지원 ▲지난해부터 직원 교육을 통한 역량 수준을 회사가 공식 인증하는 엠블럼을 지속적인 역량개발 수단



으로 활용하는 등 인적자원개발 혁신의 3대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한전은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공 HRD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 2개 부문을 석권하기도 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한전의 재무위

기 극복과 체질 혁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중 하나이다"며 "한전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에너지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견인할 미래 인재육성에 앞장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나주경찰과 '안전 사회 만들기' 협약



선제적 사고예방 등 초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일 나주경찰서와 범죄 피해, 교통사고 등 선제적인 사고피해 예방 등에 초점을 두고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주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고령층, 어린이 등 피해에 취약한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교통 안전 사고 예방 교육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안전 캠페인 공동 전개 및 안전 물품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인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사는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또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사회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지역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DN, AI 기반 에너지 결합데이터 분석플랫폼 개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예측 등 활용

한전KDN은 에너지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한 'AI 기반 에너지 결합데이터 분석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I 플랫폼은 AI 서비스 관련 기술을 한 곳에 통합해,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조합, 다양한 산업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전KDN은 기존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전처리 ▲AI 모델 학습 ▲AI 모델 검증 ▲AI 모델 서비스 배포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자동화해, AI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I 프로젝트 전 과정을 모듈화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추가해 별도의 코딩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AI 플랫폼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예측, 발전소 설비 장애 분석 등 AI 학습모델 유형별로 다양성을 제공해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한전KDN은 AI 플랫폼에 에너지 소비 패턴 분

석 및 예측 기능, 에너지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기능을 담아 에너지 분야에서의 큰 활용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AI 플랫폼은 에너지산업의 AI 관련 업무 고도화 기반 기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의 데이터 비교 분석과 체계적 관리로 국가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KISA, 사이버보안 신기술 경쟁력 강화 나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협약 특허 확보·표준화 전력 수립 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7일 서울청사에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과 국내 정보보안 및 블록체인의 사이버보안 신기술 경쟁력 강화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ISA와 KISTA는 통합보안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확보 및 표준화 전략 수립을 공동 지원한다. 또 지식재산권 전략 지원을 통해 핵심특허 대응, R&D 방향, IP 창출 등의 전략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전략 지원을 통해 발굴된 국산 특허의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방향성 수립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KISA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체계적인 특허전략 지원을 통해 특허권리 범위가 넓은 '강한 특허' 등으로 조직된 글로벌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집중한다.

이상중 KISA 원장은 "국내 보안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KISA는 앞으로도 국내 보안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유지하고, 국내 보안기업이 신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